예 배 순 서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찬 송	…… 570장 ……	다 같 이
성 경 봉 독	…… 신명기 6장 1~9절 ……	다 같 이
축복의말씀	……	인 도 자
기 도	……	인 도 자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사 도 신 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1~9절

1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주 기 도 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말씀

2019년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축복으로 약속받은 땅 가나안을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건하고도 복된 두려움과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3절).

둘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5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신 이방인들이 믿고 섬기던 다양한 우상들과 배부르게 할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쁘다는 이유와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쏟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새로운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지켜갑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물리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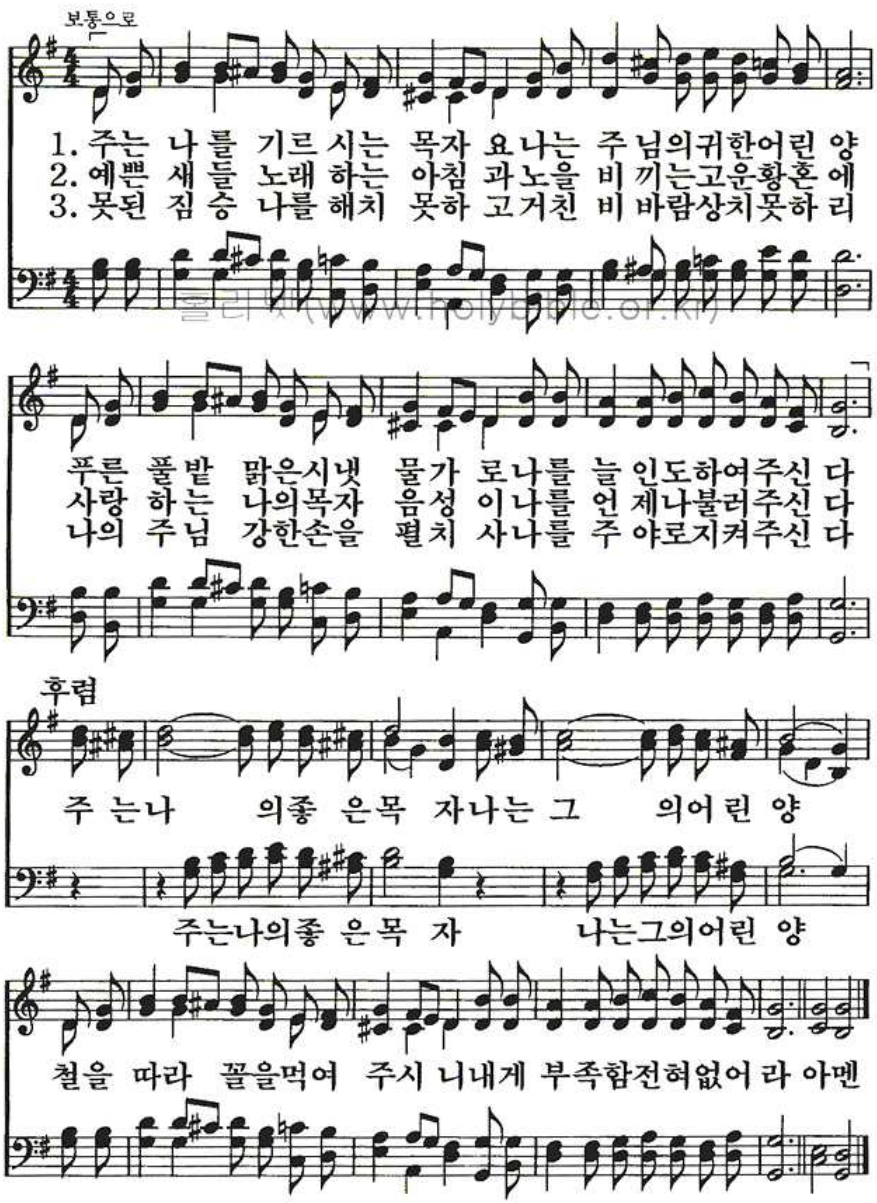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7절). 2019년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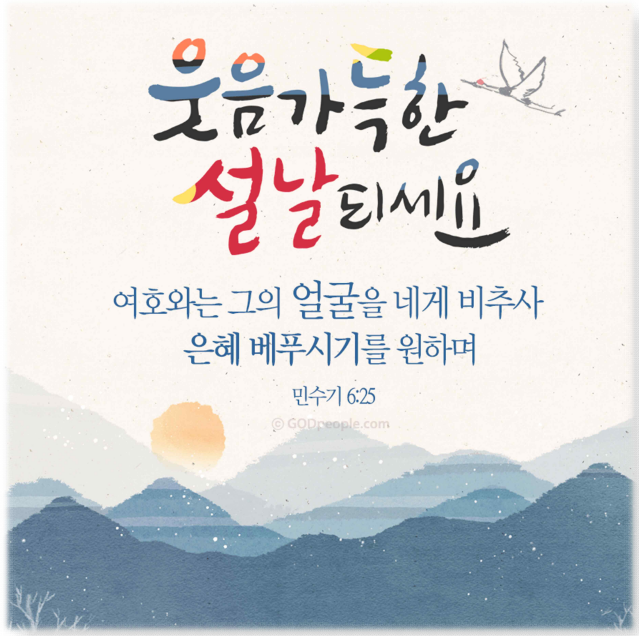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올 한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570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통일 453)



설 명절 가정예배



혜천기념교회
담임목사 이 규 현